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구성안 ④

광고고등학교 서덕희 선생님

어쩌면 우리는 모두 지구별의 난민

표명희 장편소설 『어느 날 난민』



책 소개

난민(refugee).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멀게 느껴지는 말이다. 그런데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지금 그들은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며, 심지어 나도 난민이라는 느낌이 든다.

소설 초반부를 읽을 때는 단편소설인가? 추리 소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인물들의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며 한 조각씩 드러나기 때문이다. 길을 떠도는 ‘해나’와 ‘민’,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에서 자란 ‘뚜앙’, 이슬람 율법을 어긴 죄로 친오빠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인도 출신 ‘찬드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쫓겨온 ‘샤샤’네 가족, 아프리카 부족장 딸 ‘웅가’와 프랑스 백인 남자 ‘미셸’ 커플 등이 영종도 난민 지원 센터에 모여들며 관계를 맺어 간다. 연못에 떠 있는 개구리밥보다 못한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아파하는 후반부에 이를 무렵, 멀게만 느끼던 ‘난민’이, 실체가 있는 인물로 살아나 독자에게 걸어 나온다.

소설이 몇 페이지 남지 않았을 무렵 “이 지구별 위에서 인간은 이래저래 난민일 수밖에 없어.”라는 털보 선생의 대사는 강편치처럼 내 머리를 강타한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원하는 세계가 나에게 쉽게 문을 열어 주지 않을 때, 또는 그 속에 뿌리내렸다고 생각했건만 어느새 밀려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난민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고 ‘나’임을 깨닫게 된다고.

독후 활동 안내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으로 다 같이 읽고 활동하는 수업을 구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책이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문제를 탐구해 볼 수도 있으며, 난민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찬반 토론도 가능하다. 사회과 수업과 연계하여 탐구 활동을 하거나 토의 토론,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진로독서라는 이름으로 설계되어 있다. 학생 개인이 진로와 진학을 고려하여 책을 선정할 수 있다면 좋지만, 독자의 진로 탐색 수준이나 독서 역량이 천차만별인 학교 현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독서를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 활동 3]**을 통해 다양한 역할과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추가했다. 세상 모든 고민이 직업을 갖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들의 선입견을 흔들기 위해서, 직업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필요한 역할을 고민하는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어느 날, 난민』 독후 활동으로 무엇보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나’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적용 활동 1]**이다. 자신이 원하는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내가 원하는 세계나 관계에서 밀려났을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생각의 폭은 넓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수치는 상승할 것이다.

☰ 차시별 수업 계획

●●●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을 위해 인상적인 문장,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 등을 메모하면서 읽기를 당부한다.

●●● 읽기 후 활동

모둠별 작품 이해, 적용 활동 및 내면화 단계이다.

[이해 활동 1]은 모둠 수를 고려하여 등장인물을 나누어 탐구하거나, 모둠 안에서 각기 말을 인물을 나누어 활동하도록 한다. [적용 활동 1]은 모둠원이 서로 다른 세계를 꿈꾸고, 과거 소외된 경험이 다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좌절하거나 힘겨운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동질감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적용 활동 2]는 모둠별로 아이디어를 모은 후, 전체 발표를 통해 중복되는 가치를 확인해 보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다. [적용 활동 3]은 진로독서와 연계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이해 활동 1] 인물 탐구

인물의 사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인물 탐구하기

등장인물	해당 부분	사연
강해나와 강민	별난 동거	
허 경사	별난 동거	
진소희 소장	영어 캠프가 끝나고	
김영록 주임 (텔보 선생)	영어 캠프가 끝나고, 1호 난민	
뚜앙	고향의 맛	
찬드라	명예 살인	
샤샤네 가족	내 아버지는……, 제발 그만 좀 해!	
웅가와 미셀	포커페이스	

[적용 활동 1] 난민과 나의 관계 맺기

속했던 세계에서 밀려났을 때의 상황	당시의 기분을 이모티콘으로 그리기
내가 원하는 세계	'현재의 나'와의 거리 설정 () km '내가 원하는 세계' '현재의 나' • 이유 :

[적용 활동 2] 난민 유전자를 가진 인류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갖고 있어야 할 것 3가지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말하기

예시) 나를 위로해 줄 친구: 아무리 힘들게 떠돌더라도 나를 위로해 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언어 능력: 어디에 가더라도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적용 활동 3] 난민을 위한 NGO 활동, 시설 확충, 제도 정비, 교육 서비스 등 난민을 위해 미래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설계하기

예시) 건축가: 극심한 긴장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면 섬세한 건축이 필요할 것 같다.

[탐구 활동] 모둠별로 난민 문제 탐구하기, 캠페인 자료 만들기

Tip! 탐구 활동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장소에서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검색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찾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기른다. 유엔난민기구(UNHCR) 사이트에 방문하면 각종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문제 등을 검색어로 넣어도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보고서를 만들 때 자료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지도한다.

단순히 소설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인식이 변하고 이어 행동까지 뒤따르게 하는 것이 독후 활동의 최종 목표일 것이다. 2차시에서 난민 문제를 탐구한 후 3차시에서 탐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홍보물을 만들어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난민 문제에 대한 탐구 주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2번을 제외하고는 유엔난민기구(UNHCR) 사이트 방문만으로도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모둠별로 탐구 주제를 나누어 제시하되, 모둠 수에 맞게 국가별 대응 방안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다.

1. 난민 발생 지역, 난민 규모 등 조사
2. 난민에 대한 국가별 대응 방안 조사(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북유럽 국가, 미국 등)
3. 우리나라 난민의 역사
4. 우리나라 난민법 및 난민 신청 실태 조사
5. 한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인물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연 소개하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어느 날 난민』 독후 활동 난민 문제 탐구 보고서	
모둠원	
탐구 주제	
탐구 내용	
자료 출처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구상하면서 했던 고민과 그 대답

- ❶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게 좋을까? 각자 취향대로 읽도록 하는 게 좋을까?
- ❷ 우리 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책인가?
- ❸ 길거나 어려운 책으로 한 권 읽기를 해도 될까?
- ❹ 한 권 읽기에 배당할 수 있는 차시는 총 몇 시간인가?
- ❺ 학급당 인원수만큼 책을 다량으로 구입해도 될까?

2017학년도에 고1 국어를 담당하게 된 선생님들과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활동했다. 2학기 들어서면서 새 교육 과정 도입을 앞두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 국어교사들은 새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서 관련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고, 11개 교과서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작전을 짰다.

❶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게 좋을까? 각자 취향대로 읽도록 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이 시작이었는데 결국 '진로독서'라는 교육 과정의 취지와 학생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선행 조건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취향대로 읽도록 하되, 독서 나눔을 위해 10권의 추천 목록을 제시하기로 했다. 문학과는 물론이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으로 목록을 만들었다. 사실 이 과정이 가장 길고 힘들었다. 4명의 국어교사가 책을 선정하고 읽고 추천 목록을 작성하는 데 4개월 정도 걸렸다.

❷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학생 간 수준 차가 엄청날 것이다. 이미 평균적인 성인의 독서 수준을 능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도 한 교실에 있는 상황. 초점을 어디로 둘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는 10권의 책을 추천할 때 순한 맛부터 아주 매운 맛까지 단계별로 제시하기로 했다.

❸ 결론부터 말하면 작년부터 고민하면서 짠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하고 있다. 성공의 요인은 미리 준비해서 입학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고 실패의 요인은 교사들의 욕심이 컸다는 것이다. 우선 추천 목록 10권 중 아주 매운 맛이나 철학 책을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 학급 내 독서 나눔 모둠을 짤 때 힘들었다. 물론 각기 다른 책을 읽은 학생들의 모듬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나눔 학습지를 제작했으나, 같은 책을 읽은 학생들의 토의보다 내용이 얕고 엉성했다. 같은 소설을 읽고 독서 나눔을 한 경우 가장 토의가 원활하고 내용이 깊게 나왔다.

④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업시간 10분 독서를 시작했다. 매 시간 10분 동안 책을 읽고 독서 체크리스트에 한 줄 기록하고 교사가 확인 도장을 찍고 있다.(진로 시간을 맡은 교사도 10분 독서에 동참하고 있다.) 읽기 시간이 7분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챕터가 짧게 구성된 책이 좋다. 장편소설 『편의점 가는 기분』은 읽기 단위가 약 7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10분 독서로 적합하다.

⑤ 학급당 인원이 많이 줄어서 올해 우리 학교의 경우 한 반에 26명씩 입학했다. 한 권에 1만 원 정도라면 30권을 사면 30만 원, 교사가 3명이라면 90만 원 정도가 든다. 교과에 배정된 교재교구 구입비로 구입한 책은 1년을 쓰고 폐기해도 무방하기에 파손이나 분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책을 읽게 하고 싶다면 책에 번호를 매겨, 각 반마다 자기 번호의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이나 노트에 읽기 중 메모를 하도록 지도한다.

결론적으로 국어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진행한다면 같은 책으로, 국어교사가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소설로,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준 차가 많이 나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일수록 국어교사가 욕심을 덜어야 한다.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책으로 선정하되, 독자의 가슴에 깊은 감상을 남기는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으면 한다.